

製品價安定으로成長에貢獻

原料 價格

韓國經濟의 오늘과 來日

62년부터의 1, 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成功的으로 完遂한 韓國經濟는 72年 가을까지 約1年間의 不況試鍊을 克服하였다. 激増하는 輸出需要와 國內 各種生産施設의 稼動率이 急上昇한 「타이밍」이 맞아진 것은 마음 호뭇하게 한 일이다.

萬一에 過剩狀態를 크게 念慮해야 했을 程度로 積極的인 生産施設을 하지 않았다면 72年 겨울以來의 輸出需要의 增大에 酬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世界的인 「인플레이」가 그처럼 것잡을 수 없이 昇進되고 그것이 우리나라 商品의 輸入增加要 因으로 作用하지 않았던들 지금쯤 우리는 過割施設에서 오는 構造的 不景氣에 허덕이게 되었을 것을 일단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檀君以來의 好景氣라고 財界一部에서 謳歌하기 까지 하는 오늘날 韓國經濟의 好況은 主로 海外景氣의 輸入에 依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經濟政策의 奏効가 相當히 컸음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그 代表的인 것이 昨年 가을의 8·3措置이었다.

8·3措置가 企業財務構造를 顯著하게 改善하였기 때문에 우리 商品이 「코스트」面에서 餘裕있게 國際競爭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8·3措置와 輸出需要가 激増하기 시작한 것이 時期을 같이한 것은 참으로 多幸스러운 偶然의 一致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8·3措置直前의 企業資金難은 71年 겨울 以後 繼續되어온 不景氣와 政府의 緊縮政策으로 말미암아 最惡의 狀態에 이르고 金利負擔의 壓力이 大部分의 企業經營實態를 不健全케 하였다. 이해서 休·廢業者가 漸次 高率化 되어갔기 때문에 政府는 8·3措置와 같은 斷을 내리

우리나라 食品工業界는 그동안 安定된 가격선에서 각종 제품을 무제한 공급함으로써 국민식생활 개선, 국제수지개선, 물가 安定 대책, 內資動員 등으로 경제성장을 多角的으로 뒷받침 해 나왔다. 그러나 지금도 원료확보, 제품가격현실화 등 갖가지의 난제를 안고 있다.



尹 章 奎
(産業經濟論說委員)

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80年代初의年間百億弗輸出과 1人當國民所得千弗의目標를 指向하면서 重化學工業의 建設, 새마을 事業을 中心으로 하는 農漁民所得増大事業을 推進하고 있는데 다음에 말하려는 바와같이 食品工業의 重要性은 國民食生活對策, 物價對策等 등의 側面에서 날이 갈수록 무게를 더해 가고 있다.

食品工業의 重要性和 隘路

食品工業의 重要性은 여러가지의 側面에서 肯定될 수 있다. 예를들자면 ①國民의 所得의 増大됨에 따라서 食生活構造가 달라지고 ②人智의 向上은 非米食糧(小麥粉等)이 「카로리」面에서 오히려 優位함을 깨달게 하였으며 ③政府가 米穀増産을 積極獎勵하고는 있다. 그러나 1人當 米穀消費率이 大體로 現水準을 維持하는 限 人口成長展望과의 關聯에서 앞으로 繼續尨대한 量의 外米輸入을 해야할 것이므로 그를위한 外貨消費가 國際收支의 改善을 어렵게 하는 큰 要因이 된다. 이같은 要因除去에 直接的인 貢獻을 할수 있는 것이 食品工業의 發展이고 ④食品工業의 보다 科學化가 同質·同量의 原料로 多様な 製品을 生産할 뿐만 아니라 食品으로의 效率化를 可期케 하며 ⑤엔겔係數를 낮춤으로써 貯蓄増大와 其他物資購買力을 強化하여 全般的인 經濟發展과 國民生活水準의 向上에 寄與하는 것 등이다.

이렇게 食品工業은 韓國經濟의 80年代 飛躍을 國民의 食生活改善, 國際收支改善, 物價決定政策, 內資動員等 등에 걸쳐 多角的인 뒷받침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二大 隘路가 있음을 否定할 수는 없다.

이를 具體的으로 말하자면 食品工業이 發展되기 위해서는 技術革新, 施設의 改善 및 擴

張 新製品의 開發 輸出 市場의 開拓等등 여러 가지 方法을 손꼽을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층 根本的인 問題로 登場된 것이 原料와 製品價格이다. 史上에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國際市場의 資源戰爭 속에서 우리가 必要로 하는 原料를 어떻게 確保할 수 있을 것인가 또 輸入代替의 方法은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政府의 物價安定策에 順應하여 食品工業界가 거의 오름세 없는 製品價格을 相當한 期間維持해 왔지만 그같은 無理가 果然 어느 時點까지 持續될 것인가 하는 點 그리고 또 政府의 物價安定政策과 製品價格의 現實化가 어떠한 線에서 異質의 同質化 最大公約數를 發見할 수 있을 것인가의 등 등은 關係當局 및 業界가 지니고 있는 二大 課題인 뿐만 아니라 消費者 또한 올바른 問題意識을 가져야 할 對象이 됨에 足하다.

거센 資源確保難

食品工業界가 生産하는 製品은 라면, 빵, 과자, 설탕, 통조림, 淸涼飲料, 食用香料, 커피 및 其他 多様하다. 그리고 그 原料로서 小麥 食用 牛脂·大豆 등의 主原料와 갖가지의 副原料가 必要함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小麥 牛脂를 비롯한 各種 主·副原料의 國際時勢가 지금까지 長期에 걸쳐 高率의 續騰을 계속하여 國際 「인플레이」가 食品原料를 核心으로 해서 擴散된 感이 切實하고 놀랄만한 高價로도 求得難마져 激甚하다.

이와같은 食品原料의 供給力不足과 價格暴騰의 背景을 살펴본다면 供給力이 不足하기 때문에 價格이 올라가는 經濟原理以外的 作用이 없지도 않다. ① 즉 달러貨가 世界主軸通貨의 役割을 勘受할 수 없게된 體質弱화에서 온 世界通貨의 不安과 國際市場의 資本過剩狀態가

換物思想을爆發시키고 ②先進國들의 肥大해진 財閥들이 賣占買惜行爲를 盛行하며 ③蘇聯과 中共의 小麥大量輸入이 모든 小麥輸入國을 刺戟하여 輸入競爭戰이 벌어진 結果로 小麥의 國際供給力 不足을 必要以上 激化시키고 따라서 小麥의 國際時勢가 天井을 모르고 치솟게 된 것이다.

그러나 小麥의 國際供給力前途가 本質의으로 樂觀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名心해야 하겠다. 그 두가지의 理由만들자면 小麥製品의 消費人口가 늘어나게 하는 食生活의 構造的인 改善과 世界人口의 보다 高率의 增加展望이 그것이다.

세계의 米食人口가 漸次粉食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家族計劃 및 其他로 表現의 用語를 달리하는 人口增加率抑制政策 遂行과 社會的啓蒙運動이 끈질기게 계속되고는 있지만 世界全體의 人口는 加速的인 增加를免치 못할 것으로 豫想된다. 그 重要的 理由는 世界人口의 約4分の3를 차지하고 있는 後進國民들의 衛生思想이 向上되고 醫藥의 惠澤을 입을 수 있으리 만큼 所得이 늘어나며 醫藥自體가 더욱 開發되는 것 등이다. 그래서 死亡率이 낮아지고 家族計劃에 대한 關心은 稀薄한 것이 後進國家群의 大勢인 때문이다.

세계가 지난 일나동안 食品原料確保難의 苦痛을 겪어야 했고 지금도 當하고 있는 打撃의 原因은 物量이 不足한 것 以外에 人爲的 作用도 결들었다 함은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거니와 앞으로는 人爲的 作用이 없더라도 供給力이 顯若하게 모자라질 可能性도 勘案하면 우리의 姿勢가 緊要해 진 것이다.

資源難時代를 痛感케 하는것은 勿論 食品工業의 原料뿐이 아니다. 古鐵, 各種食糧, 原本原油, 原毛, 原綿, 電氣, 銅天然, 고무 및 其他가 모두 資源難品目에 屬한다.

그런데 資源難 時代가 招來될 可能性은 71年 中東產油國一部에서 資源「내손날리즘」이 擡頭하였을 때 이미 豫見되었었다. 石油生産의 國有化, 石油의 生産制限, 產油機構(先進國資本)에의 經營參與등등 그들 國家의 主張은 資源保有國의 地位를 強化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世界의 穀倉으로 自他其認하는 美國이 지난 7月5日 農産物의 全般的인 (41個品目) 輸出禁止를 취한것은 世界를 놀라게 함에 足하였다. 그 原因은 72年의 小麥凶作을 當한 蘇聯이 美國小麥生産量의 約 4分1을 買占하자 역시 凶作國이었던 中共이 美國産小麥을 서둘러 大量輸入하고 이 두나라의 大量小麥輸入이 全世界 小麥輸入國의 買進意慾을 刺戟시키고 만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食品工業 主原料의 首位인 小麥問題는 原油問題와 더불어 資源難題中에서 가장 두드러진 難題로 보는 例이 많고 여기에 古鐵를 包含시킬 뻔 3大問題로 評價된다.

얼룩진 製品價格

原料問題에 비금하는 問題이며 食品의 品目에 따라서는 原料에 못지 않게 或은 그以上の 生産隘路도 加해진 것이 價格問題이다. 食品價格이 계중에는 原料값 昂騰을 反映시킨것도 있고 表面上으로는 올리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其實은 質에 依해서 「커비」하는 非正常的인 價格合理化 品目이 없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같은 部分的인 現狀으로 大勢를 得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輸入原料라던 더 말할 것도 없고 國産原料일 경우도 原料값 上昇率은 優先的으로 製品價格에 反映시키는 最小限度의 現實화가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企業倫理의 助長이 될수 없고 진정한 意味에서의 消費者保護 目的도 達成하기

어렵게 된다. 相當한 數의 品目으로서 어느편이나 하면 代替主食 또는 그에 準하는 主要食品들이면서 一定水準 以上の 企業體가 生産하는 食品은 表襲不同한 方法으로 當局과 消費者를 속일 수는 없기 때문에 經營合理化 나아가서 出血價格으로 어느時點까지 견뎌 나갈것인지 疑問이다. 그리고 위에서 指摘한 바와같이 정말 業者들이 製品의 畧量을 줄이고 質을 낮추어야만 企業이 될 수 있을만큼 當局의 認定價格이 無理할 경우에는 消費者가 實質적으로 保護받는 셈이 되지도 않는다.

原料와 價格對策

끝으로 原料와 製品價格對策을 要約해 보고자한다. 原料對策으로는 ① 供給不圓滑이 相當히 長期化 될 것을 前提로해서 原料備蓄 目標을 세울 것 ② 主要原料의 無制限輸入許容 및 其他 貿易施策上的 輸入 增進阻害 要因을 除去할 것 ③ 原料輸入市場 多變化에 積極히 對할 것 ④ 原料의 開發輸入과 國產의 輸入代替를 助長할 것 ⑤ 物資借款의 抑制方針을 解消할 것 ⑥ 業者團體中心의 共同購買(輸入包含)를 體系化시킬 것 ⑦ 資源國과의 長期供給契約를 締結할 것 ⑧ 制度上으로 諸費用을 節減시키고 金融 및 稅制上的 支援을 아끼지 말것 등이 要望된다.

한편 製品價格의 不自然스러운 規制 즉 表裡不同한 價格維持가 無意味함은 再論치 않기로 하거니와 關係當局이 劃一的인 價格政策을 止揚하였으면 한다. 例를 들자면 技術革新등에 依해 原料節約이 된 製品은 價格上의 特惠를 주고 粉食센터에 對한 稅制上의 特惠를 生産者에게도 週及시키며 「메이커」의 直賣直營制를 支援하고 經營의 더욱 合理化를 政府가 뒷받침 해 줄것 등이 스럽다.

맺는말

끝으로 몇 가지의 附言을 하고 싶다. 첫째로 一般家庭과 飲食店등에서 食糧 浪費性의 生活과 營業方法을 改善해야 하겠다. 食品工業用의 原料뿐만이 아니라 米, 麥 其他 모든 食糧의 世界的인 供給展望이 非樂觀的이다. 오늘날 世界人口의 實態는 대단히 不分明하다 그는 自由世界의 人口도 統計에 들어 있지 않는 部分이 적지 않고 共產國家의 人口實態는 더구나 알 수 없다. 때문에 現人口를 33億 乃至 40億으로 보면 西紀 2千年에는 63億 乃至 80億에 이를 것으로 豫想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現在의 人口와 2千年에 나타날 世界人口의 推計와 豫想은 人口學者들 사이에도 嚴格한 差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現在 人口로 推計되는 最低線인 33億이 2千年度의 豫想最低線인 63億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實로 倍에 가까운 驚愕할만한 激增이다.

이러한 世界的인 覺感을 가지는 우리이어야 하겠거니와 그보다 切實한 것이 우리自身들의 食糧에 대한 問題意識을 올바르게 가져야 할 그것이다. 지금까지는 年間 20億弗의 輸出 實績도 나타내 본 적이 없고 今年에 비로소 23億 5千萬弗의 輸出目標을 策定한 우리인내 年間 數億弗을 食糧輸入用 으로 써야하는 것이다. 이같은 事實은 비록 아무리 적은 量이라 할지라도 食糧의 浪費가 容認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한편 粉食이 더욱 獎勵되어야 하겠다. 지난날 한때 現行 一週 2日의 無米日을 週 5日까지 擴大할 政府方針이라고 傳해졌을 때는 너무 急進的이란 느낌이 없지 않았지만 小麥의 輸入確保가 可能하기만 하다면 週 3日程度로 無米日을 늘려도 좋을 段階라 할 만큼 都市民은 粉食生活에 상당히 익숙해 졌다.